

**\* 과목 및 주제 \***

국어 세특 >> 독서를 통한 텍스트 분석을 생명공학과 연계한 주제 탐구

**\* 가이드 \***

- 주제 선정과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 -

국어의 경우, 독서를 통해 텍스트를 분석하고 비교해보는 활동을 세특에 작성해주시면 좋습니다. 이에 생명공학과를 희망하시는 유민 학생의 진로를 고려하여 소설 ‘<프랑켄슈타인>, <멋진 신세계>에 나타난 과학과 생명윤리 연구’라는 주제를 제시해보았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이나 <멋진 신세계> 한 작품을 선정하여 과학과 생명윤리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도 좋고, 혹은 두 작품을 비교하여 과학기술과 생명윤리에 대한 논의를 펼쳐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는 과학기술과 생명윤리가 두 개의 작품과 전반적으로 어떻게 관계되는지에 대한 내용이니 참고하시어 보고서를 작성하시는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부 내용
보고서 흐름 추천	<p><b>■ 서론(주제 선정 이유 및 탐구 주제 제시)</b></p> <p>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은 과학자들로 하여금 이전에 신의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생명창조의 영역을 넘나드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은 인간의 발전을 의미함과 동시에 다양한 생명 경시, 인권, 자율성과 윤리적 문제를 초래하였고, 생명윤리는 생명공학에 있어 가장 대두가 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p> <p>생명공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으로써 이러한 생명 윤리 문제를 풍자하고 있는 ‘멋진 신세계/프랑켄슈타인’를(을) 읽고, 그 내용에 대한 분석 및 고찰해보는 탐구를 진행하였다고 서론을 서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b>■ 본론(멋진 신세계에서 나타난 과학기술과 생명윤리 문제 분석)</b></p> <p>소설 속 내용을 분석하여 생명공학과 윤리적 문제를 고찰해보았다는 내용이 본론의 주를 이루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유민 학생이 생명공학에 관심이 높은 학생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본론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아래 별도로 제공해드렸으니 활용해주세요.</p> <p><b>■ 결론 (분석 에세이 작성/느낀 점 및 배운 점)</b></p> <p>소설 속 내용을 분석하여 생명공학과 윤리적 문제를 고찰해보는 주제를 선정하여 에세이를 작성해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특히 생명윤리에 있어 ‘생명 통제와 자율성’에</p>

대한 주제를 뽑아 에세이를 작성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 과학기술과 생명윤리: <프랑켄슈타인>, <멋진 신세계>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은 과학자들로 하여금 이전에 신의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생명 창조 영역을 넘나드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곧 과학기술은 세포 및 유전자 조작을 통해 새로운 생명체를 생산하는 단계에 도달한 것이다. 이러한 발전은 생명의 신비와 생명체 탄생과정에 대한 인간의 과학적 호기심의 놀라운 결실이다. 예컨대, 1978년 영국 올드햄병원(Oldham General Hospital)에서 제왕절개를 통해 첫 시험관 아기 루이스 브라운(Louis Brown)이 태어났고, 이 성공은 많은 불임부부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더 나아가 1996년 영국 Roslin Institute의 월렛 박사(Dr. Wilmot)팀에 의해 이루어진 복제 양 돌리의 탄생은 생명공학기술이 생명의 경외감을 범하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리는 세계적 사건이었다. 그리고 최근 많은 생명공학자들이 줄기세포를 통한 인체기관 복제 연구에 전념하고 있고 적지 않은 결실을 내고 있다. 이 시점에 이르자 종교계 및 생명윤리학적 관계자들은 가장 존엄하고 귀중해야 할 생명을 상업화하려는 의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기에 이르렀고 동시에 생명윤리를 연구하는 연구소나 학회들이 본격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생명윤리를 상실하게 될 경우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무너져 이 사회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생명윤리학(bioethics)의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생명윤리학은 인간이 생명을 다루는 행위 혹은 그와 관련된 일에 있어서 도덕적 가치관과 도덕적 원칙에 바탕을 둔 인간의 윤리적 행위에 대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생명공학기술(biotechnology)은 이미 유성생식이 아닌 무성생식 및 복제를 통해 생명체 혹은 인간을 생산해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 결과 생명윤리학은 유전공학, 생명공학, 그리고 의학연구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윤리 연구로 이해될 수 있다. 생명윤리 연구는 곧 포괄적으로는 전체 생명체를, 그리고 제한적으로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고, 탐구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고, 인간존재론에 대한 새로운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인간의 생명과 삶이 작위적인 형태로 조작되고 통제되는 모습을 매리 셸리(Mary Shelley)의 프랑켄슈타인(Frankenstein 1818)과 앨더스 헉슬리(Aldous Huxley)의 멋진 신세계 (Brave New World 1932)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시대와 배경이 다르지만 두 작품이 지니고 있는 공통점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낸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인간복제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현 시점에 이르러 과거의 소설들에 나 타난 생명의 창조/생산 과정과 그 결과를 살피는 작업은 생명공학이 발달한 오늘날 우리에게 생명윤리적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선 생명윤리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해 각기 다른 시대의 두 작가가 어떠한 방식으로 자연과학의 발달의 양상을 작품에 담아내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본 후 학문적으로 생명윤리의 개념을 가장 먼저 제기했고 현재 이 분야에 있어서 가장 괄목할만한 업적을 낸 바 있는 싱어(Peter Singer) 교수가 제시하는 생명 윤리학의 목적과 방향에 기대어 그 작품들을 분석할 수 있다. 더불어 두 작품 속에 나타난 사회 및 인물의 생명윤리의식

을 고찰하고 포스트휴먼(posthuman) 시대에 이른 오늘날 과학 연구에 있어서 요구되는 생명윤리의식의 생태학적인 균형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 ■ <프랑켄슈타인>에서 나타난 자연과학의 발달과 생명윤리

매리 셸리가 프랑켄슈타인을 발간하게 된 1818년경은 영국 산업혁명 이후 의학, 생물학을 비롯한 자연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한 시기이다. 특히 과학자들은 당시 생명의 근원이 전기와 관계가 있다는 갈버니 이론(galvanian theory)에 근거하여 많은 실험을 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프랑켄슈타인이 전기를 이용하여 기괴한 방식으로 인간창조를 다루고 있지만, 전기를 생명의 원천으로 보는 갈버니 이론을 바탕으로 실험을 진행시킨 점에서 이 작품을 단순히 비논리적인 고딕소설로 치부할 이유는 없다. 자연과학에 많은 관심을 보였던 셸리는 프랑켄슈타인의 입을 빌어 당시 "과학과 기술에 있어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 발전"(35)에 대해 언급한다. 18세기와 19세기 계몽주의의 시대에 영국을 비롯한 유럽전역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프랑스 화학자이자 생물학자 라브와시에르(Antoine Laurent Lavoisier 1743-1794), 이태리 물리학자로 동물전기를 통해 갈버니이론을 확립한 갈버니(Luigi Galvani 1737-1798), 미국 과학자이자 발명가인 프랭클린 (Benjamin Franklin 1706-1790), 화학자이자 물리학자인 달톤(John Dalton 1766-1844), 전지를 발명한 이태리 물리학자 볼타(Alessandro Volta 1745-1827), 자연철학자이자 생리학자인 에라스무스 다윈(Erasmus Darwin 1731-1802), 완두콩의 유전법칙을 발견한 성직자이자 생물학자인 멘델(Gregor Johann Mendel 1822 - 1884), 다윈의 불독이라 일컫는 생물학자 T. H. 헉슬리(Huxley 1825 - 1895), 그리고 진화론을 확립한 다윈(Charles Darwin 1809 - 1882) 등 많은 자연과학자들이 다양한 실험을 통하여 자연에 내재된 원리 와 비밀을 밝혀내는 작업에 몰두하였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어린 소년 시절을 보낸 프랑켄슈타인(Victor Frankenstein)은 중세의 연금술을 다룬 코르넬리우스 아그리파(Cornelius Agrippa), 파라셀서스(Paracelsus), 그리고 앨버투스 마그누스(Albertus Maguus)의 서적들을 읽고 과학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 이후 독일 남부에 위치한 잉골슈타트(Ingolstadt) 대학을 다니며 근대과학에 대해 눈을 뜨게 되고 수년 간 발트만(M. Waldman)과 크렘페(M. Krempe) 교수의 사사 후 최고의 과학연구 자가 된다. 누구보다도 생명의 비밀에 대한 강한 호기심을 지닌 과학자로서 프랑켄슈타인은 "자연의 후미진 속으로 파고들어"(30) 생명의 원리를 알아내고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한다. 이러한 프랑켄슈타인의 도전적 연구는 아마도 독일 생태철학자이자 생명윤리학자인 요나스(Hans Jonas)의 말처럼 "자연 안으로 적극적 개입을 통하여 진리를 자연으로부터 억지로 빼앗겠다는 결심, 즉 인식대상 안으로 간섭해 들어가겠다는 결심"(요나스 96)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프랑켄슈타인은 지식 추구를 도용한 많은 문학적 인물들의 전형적인 한 예"(Guinan 307)로 여겨지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고대 이래로 많은 과학자들이 생명의 비밀에 대한 과학적 탐구를 시도해왔으나 여전히 그 속제는 거의 규명 불가능한 일로 간주되어 왔다. 이러한 가운데 19세기 초 매리 셸리는 신비적인 중세 연금술 방식이 아닌 당시 과학자들이 이룩한 근대 과학적 발견에 기초해 생

명 창조를 시도하는 젊은 프랑켄슈타인을 상상해 낸다.

프랑켄슈타인은 비과학적인 연금술 방식을 버리고 생명의 원천으로 간주된 '전기'를 통해 생명창조의 꿈을 실현하고자 한다. 특히 "생명을 회생시킨다"(36)는 프랑켄슈타인의 꿈은 생명의 연장, 더 나아가 생명의 재생을 추구하고 있는 오늘날의 유전공학(genetic engineering) 기술과 인간복제(human-cloning) 기술의 문제와 직결된다.

### ■ <멋진 신세계>에서 나타난 자연과학의 발달과 생명윤리

오늘날의 유전공학 기술과 인간복제 기술의 문제점은 멋진 신세계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 작품에서 언급되고 있는 인간생산 방식은 '런던 부 화세뇌 센터'(London Hatchery and Conditioning Center)에서 시행되고 있는 "보카노브스키 공정"(Bokanovsky Process 6)으로 하나의 배아를 수백 개로 "가지분화"(budding 6) 시켜 그 만큼의 맞춤형 아기를 대량 생산해내는 식이다. 이 사회의 모토가 "공동체, 동일성, 안정성"(Community, Identity, Stability 3)인 것을 고려하면 인간은 그 사회 공동체 유지와 안정을 위해 기계로부터 생산된 동일한 제품이자 소모품일 뿐이다. 따라서 포드(Henry Ford)의 "대량생산 방식을 생물학에 응용해"(7) 아기를 생산하는 보카노브스키 공정은 그 사회에서 일컫는 소위 '행복'이라는 것을 가져다주는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 런던에서의 이러한 아기생산 방식과 원시세계라고 일컬어지는 야만인 보호구역(Savage Reservation)에서의 전통적인 아기생산방식과의 비교는 멋진 신세계의 생명윤리 의식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문명은 곧 멸균"(121)이라고 여기는 런던인들에게는 야만인 보호구역 에서와 같이 부모에 의한 전통적인 아기 생산은 비위생적이고 혐오스러운 일로 간주된다. 또한 프로이트(Sigmund Freud)를 "가족생활의 엄청난 위험성을 처음으로 폭로한 사람"(39)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가족에 대한 부조리성을, 특히 아버지로 가득한 곳이라는 개념을 통해 아버지 중심의 현대사회와 가정을 비판한다. 결국 이 세계에는 가정의 근간을 이루는 '가족'(family)과 '부모'(parents)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 용어들도 금기시된다. 그 사회는 심지어 아기조차도 과학기술을 통해 인공생산됨으로써 전통적인 가정 개념이 붕괴되어버린 곳이다. 끊임없는 인간의 과학적 지식 욕구는 인간애와 인간성 상실을 가져온 반면 오늘날 과학기술 수준이 과학기술혁명, 정보통신혁명, 유전자혁명 단계, 그리고 모든 것이 통합 발전된 GNR(Genetics, Nano-technology, Robotics) 혁명단계에 까지 이를 수 있는 큰 동력이 되기도 하였다. 멋진 신세계는 이 최종적인 단계의 일면을 잘 보여준다.

### ■ <프랑켄슈타인>과 <멋진 신세계> 비교

이 작품과 프랑켄슈타인 사이에는 시대적으로 인식론적으로 거대한 격차가 존재한다. 프랑켄슈타인이 보이는 세계는 철저히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 기반의 사회로서 인간에 우선의 가치를 두고 있다. 따라서 프랑켄슈타인의 창조적 실험의 결과로 생산된 인간 괴물은 인간이 아닌 열등한 타자적 존재자로 인식되고 또 그렇게 다루어진다. 반면 기술중심주의(technocentrism) 사회를 그리고 있는 멋진 신세계에서 대부분의 인간은 사회체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생산되는 "사회체의 하나의 세포"(90)이

자 그 사회의 기능적인 도구로 전락한다. 바로 오늘날 생명공학은 유전자 조작 및 인간의 배아줄기세포 처리를 통해 미래의 세계를 '멋진 신세계'와 유사한 세계로 전락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현재의 과학발전의 수준과 속도를 고려할 때 미래의 사회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의 세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도 생태학적인 비전에 부합하는 과학발전을 이루기 위해 우선 요구되는 것은 과학연구의 지침이 될 올바른 생명윤리를 마련하는 일이다.<sup>[56]</sup> 일반적으로 생명윤리의 역사는 임상치료에 필요한 윤리적 사항들을 명시한 함무라비법전이 나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생명윤리는 칸트가 말하는 '모든 행위자가 무조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도덕률'인 '정언명령'(Categorical Imperative)에 기초하고 있다. 더 나아가 오늘날 생명윤리는 더 광범위하게 "의학, 생의학연구와 생명 과학기술에 의해 제기되는 도덕적, 법률적, 정치적, 사회적 문제들과 연관된다"(Singer and Viens 1). 단어의 의미 그대로 생명윤리는 생명 그 자체의 탄생과정과 완성된 생명체와 관련된 윤리적 규정과 판단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공한다.<sup>[57]</sup> 국내외적으로 생명윤리에 대한 논의에 있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보수적 성향의 계열에서는 유전자 및 세포 조작 실험에 대해 반대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반면, 다른 측에서는 불치병 치료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배아줄기세포 연구 및 개발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미래의 인간 가치 및 존엄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각 나라에서는 대통령 직속 하에 생명윤리 자문위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분명한 것은 첨단 생명공학 분야가 미래 성장 주도산업이 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인해 각국의 많은 과학자들이 줄기세포 개발 및 상품화를 위해 연구개발 경쟁에 돌입해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 생명공학, 생의학 분야에 관련한 생명윤리의 지침은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96년 최초로 호주 모나쉬(Monash)대학에 '인간생명윤리 센터'(Center for Human Bioethics)를 설립하였고, 현재 프린스턴대학 생명윤리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싱어(Peter Singer)가 쿠쉬(Helga Kushe)와 공동 편집한 생명윤리학 (A Companion to Bioethics 1998)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윤리학의 목적은 생명윤리 연구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생명윤리학의 목적은 행동규범이나 교훈을 발전시키거나 지키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에 대해 더 잘 이해하자는 것이다. 둘째, 그것은 윤리학의 본질, 생명의 가치, 인간됨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 의 의미에 대해 심오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셋째, 그것은 공공정책의 쟁점들과 과학의 방향 과 통제 문제를 포함한다. (Kushe and Singer 4)*

싱어가 언급하고 있는 생명윤리학의 목적의 관점에서 프랑켄슈타인과 멋진 신세계를 분석하는 것은 흥미로운 작업이다. 프랑켄슈타인 작품 초기에 프랑켄슈타인이 성급하게 괴물을 탄생시키는 과정에 노출된 생명윤리의 문제점, 탄생 이후 그 존재를 다루는 프랑켄슈타인의 태도 혹은 그가 괴물에 대해 지닌 편견에서 비롯된 반생명 윤리적인 행위, 그리고 멋진 신세계에서의 아기생산과 그들이 탄생한 이후 속하게 되는 반 생명 윤리적인 사회체제 등은 과학자 중심 혹은 과학중심 사회가 지닌 생명윤리 문제를 극

명하게 보여준다. 흥미롭게도 이처럼 셸리는 프랑켄슈타인에서 그리고 헉슬리는 멋진 신세계에서 개별 인물의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들을 통해 자연과학의 발달이 양산하고 있는 반 생명윤리적인 제 문제들을 다룸으로써 오히려 현대 우리사회에 필요로 하는 생명윤리적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 ■ 생명윤리의 부재와 과제: 프랑켄슈타인과 멋진 신세계

과학자의 사명이란 생명의 원리, 삶의 원리, 그리고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유무형의 사물에 대한 생태적인 상태 및 상호작용을 알아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프랑켄슈타인의 과학 자적인 탐구행위는 충분히 납득할만한 것이며, 그의 과학실험의 처음 의도와 취지는 바람직하다. 그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생명실험을 시작하였고 그 의도를 실행에 옮겨 나 자신 스스로가 인류에게 유익하게 될 수 있는 순간을 갈구해왔다"(69)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자신 이 창조한 기형의 험오스런 "존재의 모습을 보자마자 . . . 참지 못하고 그 실험실로부터 뛰쳐나가고 만다"(39). 오히려 자신이 만든 그 존재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괴로워한다. 그리고 괴물로부터 멀리 벗어나자 "이제 드디어 자유롭게 되었다"(42)라 표현하는데, 이를 통해 프랑켄슈타인이 자신이 성취한 결과에 대해서 과학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인간괴물을 방치한 결과는 인간세계에 소동을 불러 일으켰고, 주변의 여러 지인과 가족들이 죽는 비극까지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생명의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과학자가 모든 연구에 있어 지켜야할 행동 및 윤리 규범은 생명윤리에 기초한 철저한 책임의식을 갖는 것이다. 자신이 시행한 실험과 그 실험의 결과에 대한 책임의식이 본인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단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 최종적인 결과의 사후처리 문제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과학자로서 프랑켄슈타인은 실험의 최종 결과라 할 수 있는 생명체를 방기함으로써 유무해의 검증절차 없이 실험실 밖의 세상에 그 생명체를 노출시키는 직무유기를 범하였고, 그 결과 사회에 혼란과 혼돈을 야기 시킨다. 이러한 결과는 싱어가 생명윤리학의 목적에 제시하고 있는 과학자로서 자신이 지켜야할 행동규범에 어긋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곧 아직 자신의 반 생명윤리적 행위에 대한 올바른 자각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프랑켄슈타인의 초기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책임성 그 이상으로 더 강조되어야할 점은 과학적 행위가 지나친 사적인 욕망보다는 마음의 평정 혹은 이성적 사고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프랑켄슈타인 자신 스스로가 밝히고 있듯이 과학자는 연구에 임함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프랑켄슈타인은 "열정 혹은 일시적인 욕망이 결코 평정심을 뒤흔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지식의 추구도 이 법칙의 예외는 아니다"(37)라고 고백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전념하고 있는 연구가 애정을 약화시키고, 어떤 불순물도 섞여있지 않은 순박한 기쁨에 대한 기호를 파괴하는 성향이 있다면, 그때 그 연구는 분명 불법적이다"(37)라고 단정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고백은 과학자의 지나친 욕망이 과학자가 지켜야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판단을 해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과학자가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37)를 유지 하지 못하고 마음의 평정을 얻지 못하면 판단의 오류를 범하게 되고, 따라서 인류에 불행을 가져오고 동시에 생명의 문

제를 다룰 경우 윤리 혹은 생명윤리 문제에 있어 치명적 과오를 범하게 된다. 곧 그의 고백은 과학자란 자신의 지나친 일시적 열망이나 욕망을 버리고 진지한 합리성에 기초하여 실험에 임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그 고백은 생명윤리에 바탕을 두지 아니한 과학기술의 발전이란 인간세계를 이롭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의도하지 않았던 해악을 유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궁극적으로 매리 셸리는 프랑켄슈타인의 입을 통해 "비록 과학과 발견에 있어 공로를 세우려는 아주 순진한 야망이라 할지라도 평정심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그 야망을 피하라"(186)라고 설파함으로써 과학자가 지녀야 할 연구 태도를 재차 강조한다.

프랑켄슈타인이 창조해낸 생명체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생명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 유는 프랑켄슈타인을 비롯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자 생각하는 유일한 주체라는 전통적인 인간중심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언어능력과 사고능력이라 간주할 때 프랑켄슈타인의 생명체는 분명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창조한 프랑켄슈타인은 그 생명체를 인간이 아닌 열등한 비인간적 존재로 간주함으로써 인해 그 생명체와 인간들 사이에 갈등을 유발시킨다. 동물해방(Animal Liberation 1975)에서 싱어가 지적하고 있듯이 이러한 편견을 기존의 관행적인 성차별과 인종차별의 맥락에서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한 사람이 흑인 혹은 여성이라는 단순한 사실로부터 우리가 그 사람의 지적인 혹은 도덕적 능력에 대해 어떠한 것도 추론할 수 없는" 것처럼 프랑켄슈타인의 생명체가 인간이하의 동물로 간주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 다(Singer 3). 심지어 "한 때 인간과 다른 종 사이를 구분하던 명확한 기준은 이제 침팬지가 언어를 배울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13-4)라고 말하는 싱어의 입장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동물들도 나름대로의 사고능력과 언어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인간과 비인간을 나누는 기준이 달라져야 하고 인간의 인간다움에 대한 정의도 달라져야 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근본적인 "평등의 원칙"이 "흑인이건 백인이건, 남성이건 여성이건, 인간이건 비인간이건 모든 생명체에까지 확대되어야 한다"(Singer 5)는 싱어의 주장은 인간과 동물 사이의 차별은 곧 성차별주의와 인종차별주의와 다를 바 없는 '종차별주의'(speciesism)로서 철폐되어야 할 악이며 이러한 "무자비한 종의 착취를 종식시킴으로써 진정한 우리의 이타주의 능력"(248)을 발휘하는 것이 곧 진정한 인간됨을 보이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프랑켄슈타인의 생명체가 인간세계 밖의 타자적 존재인 것과 마찬가지로 '멋진 신세계'의 인간들도 단순히 사회를 구성하고 그 사회를 안정되게 유지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단순한 수단이자 물질에 불과하다. 아이러니한 것은 '멋진 신세계'의 인간은 비록 사람의 자궁에서 출생하지 않았지만 배양된 인간의 수정란을 통해 탄생하였다는 점에서 전통적 의미의 인간으로 분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인간의 자율적 사고와 행동 기능을 상실한 존재라는 사실이다. 프랑켄슈타인의 생명체는 '멋진 신세계'의 인간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생명을 부여받긴 하였지만 모든 인성적, 기능적 측면에서 완전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부여 받지 못했고 단순히 '악마'(Daemon), '괴물'(Monster), 그리고 '피조물'(Creature)로만 지칭 되는 흉악한 동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간주될 뿐이다. 따라서 두 작품 세계에서 생산되고 있는 생명체는 인간의

존엄성, 더 나아가 생명의 존엄성을 박탈당한 존재들이다. 특히 멋진 신세계에서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이 죽은 후까지도 그 시체가 "허물 화장터"(Slough Crematorium 73)에서 화장됨으로써 비료의 생산원료로 소비된다는 사실은 간의 존엄성과 생명가치의 상실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 사회에서의 신이 포드라는 점 역시 대량으로 생산되는 인간이 사회 안정을 위해 소비되는 소비재에 불과한 존재로서 그 사회가 인간의 존엄성에 전혀 가치를 두고 있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이 프랑켄슈타인에게 "당신은 나를 죽이려 한다. 어떻게 생명을 가지고 그렇게 장난을 칠 수 있는가? 나에 대한 당신의 책임을 다하라. 난 내대로 당신에게 그리고 나머지 인류에게 책임을 다하리라"(77)고 언급하는 것은 인간과 생명의 존엄성과 소중성을 훼손하고 있는 프랑켄슈타인에게 각성을 요구하고 있는 대목이다. 과학자가 연구자로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생명체를 창조하려는 도전적 실험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책임의식이 부재하다면 그 실험은 그 생명을 가지고 유희의 놀음을 한 것에 불과한 것임을 지적한 것이다.

프랑켄슈타인의 생명 연구에서 반 생명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그가 실험에서 취해야하는 사전 "모든 단계들"(34)을 생략한 채 결과에만 집착하였기 때문이다. 한 예로 생명체를 만들기 위해 무덤과 시체 저장소에서 인간 신체의 부위들을 채집한 것은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긋난 일이다. 하지만 프랑켄슈타인은 그 어긋난 행위를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키려 한 조치로 정당화시킴으로써 죄책감을 면하려 한다. 또한 자신이 고백하고 있듯이 처음에 자신의 "계획의 거대함과 복잡함"(35) 자체가 자신의 계획의 실행에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급한 욕망으로 인해 실험 "속도에 커다란 장애"(35)로 여겨지는 것들을 무시하고 만다. 따라서 그는 인간과 동일한 생명체 창조를 위해 요구되는 신체부위의 채집 과정에서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일을 너무 서둘러 진행시키게 된다. 그 결과 보통 인간과 동일한 외형의 생명체를 만들려했던 "자신의 원래 의도와는 달리"(35) 대략 8피트에 이르는 험오스런 거대한 인간괴물을 만들어내게 된다. 이 문제는 곧 실험 대상 혹은 재료의 선정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프랑켄슈타인의 실험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해결과제로 남아있으며, 수정란 및 체세포 실험에 있어서의 돌연변이 생명체 발생에 대한 염려는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인간 창조에서 발생한 두려움과 별반 다르지 않다. 현재 당장 실행 가능한 치료용 맞춤형 아기(savior baby) 생산의 문제를 포함하여 오늘날 수백 개의 수정란을 희생해야만 가능한 체세포 생산 및 복제의 문제는 생명윤리 논쟁에 있어 중요한 쟁점 사항 중 하나이다. 종교계 및 생명윤리학계는 수정된 난자 혹은 이미 성체로 성장한 아기가 실험 혹은 질병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그러한 오용은 생명윤리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생명윤리 실천에 있어 지켜져야 할 것은 생명공학의 엄정한 중립성이다. 이 중립성은 싱어가 강조한 세 번째 생명윤리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이다.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본과 권력의 영향력 하에 다양한 생명공학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사실 과학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프랑켄슈타인에 나타난 바처럼 인간을 질병과 갑작스런 죽음으로부터 보호

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 편 부를 얻기 위해 "불로장생약"과 "현자의 돌"(23)을 발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멋진 신세계는 과학이 이미 자본과 권력과 일원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그 세계는 "버리는 것이 고치는 것보다 더 낫다"(49), "수선이 많을수록 재물이 줄어든다"(121)는 생각을 일반소비자에 게 주입할 정도로 생산과 소비가 강조되는 자본주의 사회이다. 보카노브스키 방식의 아이 생산 역시 오늘날 동식물을 복제하려는 주된 이유라 할 수 있는 "탁월함의 영구화와 대량화" (요나스 178)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자본주의는 미래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생명공학 발달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라기보다는 현재 다국적 기업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Häyry 152)는 헤이리의 주장은 미래 사회에 생명공학 및 유전공학의 발전방향이 거대자본에 영향을 받을 것임을 예시한다. 근본적으로 자연과학 자체는 삶과 자연의 생성, 작용원리를 밝히는 순수학문임에 틀림없으나 그 순수성이 상실되어가고 있으며, 응용과학 역시 오늘날 상품화, 기업화, 자본화에 봉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인간 IVF(In Vitro Fertilization, 인공체외수정) 수정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상업적인 목적과 시대적 요구에 따라 맞춤형 아기, 혹은 복제아기, 혹은 사이보그 혹은 다른 상상의 존재가 생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피할 수 없다. 헤이리는 이러 한 상황을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에 비유하여 그의 우려를 표명한다.

*과학자들은 일반인들에게 아주 위험하거나 혹은 아주 지루한 일들을 해줄 특수한 하류층 인간을 디자인 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될 것이다. 생명공학을 반대하는 측의 주장처럼, 그 결과는 엘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와 같은 것이 될 것이다. (Häyry 148)*

자연과학 그 자체가 중립적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요나스의 "일반적으로 모든 능력은 '그 자체로' 혹은 '즉자적으로' 선하며, 악은 그것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발생한다"(요나스 42)는 지적인 인간이 어떠한 생명윤리 의식을 지니고 어떻게 그 과학을 사용하는냐에 따라 미래사회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음을 말한다. 이러한 요나스의 지적과 싱어가 제기한 과학 의 공공성의 문제를 상기한다면 과학자 및 일반인 모두는 인간 생명윤리의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을 수 없다. 더 나아가 새로운 생명공학의 성공은 곧 사회의 법과 질서에도 커 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 예로 영국에서의 시험관 아이의 탄생은 "정부나 사법부 로 하여금 필연적으로 당면하게 될 법률적, 실무적, 인간적 문제를 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본원칙을 서둘러 마련하도록 하게 하였다"(Harris 216). 이는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생명공학적 실험이 성공할 경우 뒤따를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의 새로운 제도개혁의 필요성을 말해줄 뿐 아니라 포스트휴먼 시대에 요구될 사회와 인간에 대한 존재론적, 인식론적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기도 한다.

출처: 추재욱\_현대영미소설\_제16권 2호\_프랑켄슈타인과 멋진 신세계에 나타난 과학과 생명윤리 연구 -포스트휴먼 시대의 생태학적 생명윤리

## 자료#1: [시사진단] 멋진 신세계(최진일, 마리아, 생명윤리학자)

1932년 올더스 헉슬리(1894~1963)는 과학의 발달로 인간이 모두 인공적으로 제조되는 미래사회를 풍자적으로 그린 「멋진 신세계」라는 소설을 발표한다. 여기서 그려진 미래 세계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멋진 신세계'는 '공유·균등·안정'이라는 유토피아를 지향하지만, 그 의미는 아이러니하게도 매우 엄격한 통제 안에서 규정된다.

모든 인간은 '인공부화소'라는 곳에서 체외 수정된 후 복제되고 유리병에서 배양된다. 최대한 많은 수의 일란성 쌍생아를 복제시켜 인간을 대량생산한다. 사회적 수요에 따라 유리병 안에서 이미 계급이 결정되고, 그에 합당한 지적 능력과 신체적 조건을 갖추도록 화학적 처리(현재의 기술로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를 받고 태어난다. 올더스는 유명한 생물학자인 토마스 헨리 헉슬리의 손자이다. 그래서인지 그의 해박한 생물학적 지식으로 인해 그가 묘사한 인공부화소는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서 체외수정, 인간복제, 인공 자궁, 우생학적 유전자 조작 등과 쉽게 연결된다. 부부의 일치 행위에서 소외된 생명의 시작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다. 인간 복제 기술 또한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어 온 문제이다. 인공 자궁은 연구 또한 진행 중이며, 유전자 편집기술의 발전으로 우생학적 유전자 조작은 현재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소설에서 보면 국가는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한다. 수면식 교육법이라는 방식으로 모두 규율이 녹음된 음성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옹고 그림,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세뇌교육을 성인이 될 때까지 받는다. 아이들은 자유로운 성행위를 독려받는다. 겉보기에는 성의 자유를 습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의 의미가 지극히 제한적으로만 이해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 세계에서 '가족'이라는 개념이 있을 리 없다. '어머니' '아버지'라는 말은 불쾌한 사실이며, '임신'은 야만적인 행위라고 규정된다. 또한 '일부일처제'는 비난과 경계의 대상이다. 한 사람을 몇 개월 이상 만나는 것은 비정상이다. 오히려 여러 명을 동시에 만나는 것은 정상이다. 성은 철저히 사랑과 분리되어 쾌락만을 추구한다. '만인은 만인의 것'일 뿐이다. 소비는 무조건 좋은 것이며, 행복은 너무나 쉽게 도달한다. '소마'라는 약을 복용하면 된다.

“분노를 진정시키고 적과 화해시키고, 인내하고 수난을 참도록 하는 소마가 있다. 옛날에는 대단히 어려운 노력을 거치고 오랜 수양을 쌓아야 겨우 도달되는 미덕이었지. 그러나 이제 반 그램짜리 두세 알만 삼키면 그러한 수양의 경지에 도달한다는 말일세, 이제 누구나 군자가 될 수 있네. ... 참회의 눈물을 흘리지 않고도 기독교 정신을 터득하는 것-그것이 소마의 본질일세.”

사실 이 소설은 유토피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로 느끼는 현대문명의 심각한 위기를 풍자하고 있다. 과학의 진보와 밀착된 전체주의는 나치즘이나 파시즘의 얼굴을 하지 않는다. 물질적·향락적·소비적이며, 성과 사랑 그리고 생명을 철저히 분리하는 사상과 문화와 함께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명의 문화’와 ‘죽음의 문화’가 극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는 현재 우리 사회의 상황 속에서는, 참된 가치와 진정한 필요성을 분별할 수 있는 예리한 비판적 감각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생명의 복음」 95항)

출처: [http://www.cpbc.co.kr/CMS/newspaper/view\\_body.php?cid=801598&path=202105](http://www.cpbc.co.kr/CMS/newspaper/view_body.php?cid=801598&path=202105)

## 자료#2: 멋진 신세계 리뷰

지난 3월, 이세돌(프로바둑기사9단)과 알파고(구글 딥마인드 '바둑'인공지능)의 이른바 '세기의 대결'로 불렸던 바둑 대국은 국내외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최근 10년간 세계바둑계 최강자였던 인간과 인공지능 컴퓨터의 바둑 대결, 사람들은 '이세돌'의 승리를 믿었고 바랐지만 승부의 결과는 4대1로 패배하였다. 아직은 인간의 영역이라고 믿었던 '바둑', 수많은 '경우의 수'와 '직관'이 필요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선 것이다. 당황, 경악, 좌절로 이어진 패배의 충격은 컸으며 이후 국내엔 때 아닌 바둑열풍이 불었고,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도전과 미래 앞에 새삼스런 관심을 갖게 되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의 기반을 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영화에서나 보았던 인공지능 로봇의 시대가 불쑥 다가온 것이다. 영화 '터미네이터'를 보면 인공지능은 사람과 대결을 하고 인류를 지배한다. '영화처럼 인공지능에 의해 인류가 공격받지는 않을까. 우리의 일자리를 로봇에게 내줘야하는 것은 아닐까.'하는 걱정이 든다. 예측은 하면서도 인지할 수없는 것이 바로 '미래'이기에, 막연한 기대와 두려움은 지울 수 없다.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를 펼쳐 든 것은 우연이었다.

작품은 1932년 출간되었는데 당시의 유럽은 전체주의 국가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다. 이탈리아에서는 무솔리니의 파시스트정권이,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아리안 인종의 유전적 우월성을 주창하며, 나치스가 정권을 잡는 시기였다. 히틀러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유대인과 집시에 대한 박해와 '홀로코스트'를 자행했다. 당시 인류를 유전학적으로 개량할 것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과 인자 등을 연구하는 '우생학'이 있었는데, 나치스는 학살과 더불어 생체실험도 일삼았다. 오늘날 생명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인간배아복제금지 및 엄격한 관리 아래 제한적 배아연구를 허용하는 '생명윤리기본법' 등이 있으나, '생명윤리'의 문제는 더 깊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문명사회는 포드기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하며 '공동사회, 동일성, 안정'이라는 모토의 '세계국가'가 통제한다. 9년 전쟁의 탄저균폭탄 이후 세상은 새로운 시대로 바뀌어 예술, 종교는 억압되고 더 이상의 과학발전은 불필요하며 통제된다. 유전자조작, 배아복제 등을 이용해 수많은 '쌍둥이' 인간들을, 공장에서 대량생산되는 제품처럼 만든다. 이때 인간은 배아변형을 통해 영리하고 어리석음의 정도에 따라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의 5가지 계급으로 나뉘며 이들은 각기 다른 색깔의 옷으로 구분된다. '금수저'와 '흙수저'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듯 '멋진 신세계'는 철저한 계급사회이다. 지금껏 인류의 '계급사회'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되어 왔다.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서도 학자계급, 노동계급, 노예 등의 계급사회로 그려진다. 역사를 건너 근현대만 살펴보더라도 인도의 '카스트제도'는 말할 것도 없고, 공산주의사회는 당원과 비당원으로, 자본주의사회는 빈익빈부익부의 양극화로 부의 계급사회를 이룬다. 인종차별 또한 다른 이름의 계급사회이다. 자유민주주의 종주국 미국에서 '링컨'의 노예해방선언(1863년) 이후에도 백인과 흑인이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된 것은, 1954년 '공립학교에서의 인종차별은 위헌이다'라는 판결이 있을 후부터라는 사실은 놀랍다. 더불어 현재 미국대선주자인 공화당의 '트럼프'후보는 아랍무슬림에 대한 노골적인 인종차별, 비하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그럼에도 높은 지지율을 얻는 현실은 씁쓸하기까지 하다. 과거,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 우리 인류는 '계급사회'의 구조를 부정하고 벗어날 수

는 없는 것인가. “알파에게는 알파의 일을 시킨다는 것이예요. 엡실론만이 엡실론다운 희생을 할 수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그의 운명은 스스로 어찌지 못하도록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는 말이 무섭게 설득된다.

어릴 때부터 계급의식은 수면교육, 최면교육을 통해 반복 학습 된다. 이런 반복 학습교육은 흡사 학생의 개별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정된 교육내용을 학생에게 암기시키는 ‘주입식교육’과 같다. 전통적 교육의 형식주의에 반대하여 자유·경험·생활·창의 등을 존중할 것을 기본으로 하는 ‘진보주의교육’의 정신을 새삼 떠올려 본다. 반복학습을 통해 ‘책’과 ‘꽃’에 대한 거부반응을 형성시키는데 꽃은 인간에 감성을 만들어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일으킨다. 즉, 자연환경을 바라보는 감성은 소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소비는 옛것을 없애고 새로운 물건을 대량생산하게 한다. 그러므로 꽃을 통해 얻게 되는 인간에 감성 따위는 필요 없는 사회다. 이런 논리는 문명사회의 경계를 통제하는 통치행위이다. 책 또한 옛것이기에 버려진다. 옛것은 고전을 뜻한다. 전해지는 인류의 역사, 정치, 문화, 예술분야 등을 통해서 얻게 될 고전의 가치를 배제시켜, 찬란하고 숭고한 인간존엄의 가치를 깨닫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그러므로 책에 대한 거부반응을 학습시켜 인문학을 금지하는 것 또한 정치를 통제하는 통치행위이다. 문명사회의 책과 꽃의 거부반응 학습은 세계국가를 유지하는 정치, 경제적 안정화 정책인 것이다.

버나드와 레니나는 뉴멕시코 보호지역(야만사회)을 여행하던 중 그곳에 남겨져 아들을 낳고 살던 린다를 만난다. ‘병’에서 태어나는 문명사회의 아기들에게는 부모가 없다. 형제자매 또한 없다. 가족이 없는 것이다. 가족과 가정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문명인들은 모른다. 태생의 어머니를 갖는 건 그저 외설스럽고 불결할 뿐이다. 자연태생과 모유수유 등은 야만인의 것으로 치부된다. 가족은 출산을 통해 자신의 유전을 이어받는 생물학적 자녀를 낳아 종족을 번식시키면서 인류 역사를 유지해온 인간적 행위의 뿌리이다. 인류는 지금껏 그렇게 존재해왔다. 문명사회는 가족을 부정함으로써 인간성을 상실시킨다. 린다의 남편이자 그 아들 존의 아버지가 자신을 아이슬란드로 속청시키려했던 ‘인공부화 및 행동조절국’의 토마킨 국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버나드는, 토마킨을 저지하기위해 그 앞에 린다와 존을 데려온다. 야만인 존은 ‘멋진 신세계’를 찾아 영국 런던(문명사회)으로 왔지만 그가 겪게 되는 운명은 잔혹하다. 린다는 토마킨을 향해 사랑에 매달리고 존은 ‘나의 아버지’를 외친다. 하지만 토마킨은 이들을 부정하며 국장직에서 물러나 사라진다. 이 사건은 자연출산과 가족관계가 금지된 문명사회 내에 화제가 되고 야만인 존은 유명인사가 된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존은 단지 영화 ‘킹콩’처럼 밀림에서 문명사회로 데리고 온, 서커스 쇼의 킹콩을 보는 흥미일 뿐이다. 실의에 빠진 린다는 ‘소마’를 과다복용하고 결국엔 목숨을 잃는다. 어머니 린다의 죽음을 지켜본 존은 ‘가족’이 없고 ‘관계’가 없는 상실의 문명사회임을 자각한다. 사람들에게 소마는 독약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자유를’ 외치며 소마를 던져버리지만 바뀌는 것은 없다. 문명인들에게 있어 ‘소마’는 행복을 주는 약이다.

문명사회는 통제수단의 보상으로 소마가 배급되고 자유로운 성관계가 장려된다. 소마는 정신을 지배하는 약으로서, 복용 후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편안함은 만족을 주고 만족은 개인의 안정을, 개인의 안정은 불만을 없애고, 불만이 없다는 것은 곧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며, 경제적·정치적 불만은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는 지배계급에 의해 평화롭게 통제된다. 성관계는 감각의 영역이다. 감각에 길들여지는 문명인들은 육체관계를 통해 쾌락을 얻는다. 감성 없이 감각만 남은 인간에게는 사랑은 없고 동물적인 쾌락만 있을 뿐이다. 감각은 결국 감성과 대치된다. 감성은 사랑이다. 순간

---

이 아닌 오랫동안 지속되는 인간의 본성이다. 육체관계를 원하는 레이나와 사랑을 원하는 존의 갈등은 결국 감각과 감성이 충돌하게 되는 문제이다. 문명사회, 더 이상 이곳에 '사랑'은 없다 가 벼운 '쾌락'만이 존재할 뿐이다.

'멋진 신세계'가 보여주는 문제는 인종, 계급, 가족의 문제이며 이는 곧 '관계'를 뜻한다. 가족은 해체되어 없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관계는, 통제된 사회의 계급과 감각에 의존하는 성관계뿐이다. 인간관계가 부정되는 문명사회에서, 인간성이 상실된 인류는 기계 톱니바퀴의 부속품처럼 주어진 역할만 하며 굴러가고 있다. 진리와 아름다움 대신에 편안함과 행복을 강요하는, 세계국가를 통제하는 10명의 국장 중에 1명인 서유럽주재 세계국장 무스타파 몬드에게 존은 '불행할 권리'를 주장한다. 현실의 우리에게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행복추구권'이 헌법으로 보장된다. 국가권력이 간섭할 수 없는 자유권이지만 작품 속 행복은 철저한 통제와 간섭에 의해 만들어진 거짓 행복이다. 강요된 행복이 주는 허위에 맞서 존은 부정한다. '불행할 권리'는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거짓에 대한 진실의 요구이며 종교, 예술, 자유의 요구이며, 더 이상의 과학발전과 변화를 거부하며 안정을 내세워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지배계급에 대한 개혁의 요구이며, 이는 상실된 인간성회복을 위한 요구인 것이다.

작자인 올더스 헉슬리(1894~1963)는 영국출생으로 그의 가족은 친가와 외가 모두 집안대대로 생물학, 과학 분야의 학자와 문인이 즐비하였다. 성장배경과 가정환경으로 볼 때, 이 작품을 쓸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듯하다. 작자 스스로 '멋진 신세계'는 '미래에 관학 책이며, 과학의 진보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과학의 진보가 인간 개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책'이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는 가까운 혹은 먼 미래에 인간이 어떻게 될 것인지, 고민해야하는 낯설고 흥미로운 단계에 섰다. 예측 불가능한 미래사회의 모습은 어떻게 그려져야 하는가. 이세돌은 알파고와의 바둑대결에서 연거푸 3패를 한 후 "오늘의 패배는 이세돌이 패배한 것이지, 인간이 패배한 것은 아니지 않나."라는 말을 남겼고 뒤이어 값진 1승을 거두며 깊은 감명을 주었다. 미래는 단지 인공지능과 과학발전의 이기에 맞서 싸우는 인류가 아닌, 바로 인류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이며 그 선택은 현재 우리들 각자의 몫이다.

출처: 멋진 신세계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_YES24 블로그